

아이스하키, 12년만에 NHL '별' 총출동

동계올림픽 최고 흥행 카드... 미국-캐나다 맞대결 성사 여부에 관심

밀라노 동계올림픽 종목소개

동계올림픽에서 유일한 단체 경기 종목이자 프로 리그가 활성화된 아이스하키는 최고의 흥행 카드로 손꼽힌다.

아이스하키는 1920년 앤트워프 대회에서 남자부 경기가 치러지며 동계올림픽에 데뷔했고, 여자부 경기는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이 됐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부터는 세계 최고 리그인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선수들이 참가해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종목이 됐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는 NHL 최정상급 스타들이 12년 만에 올림픽 무대에 나서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마음을 한층 설레게 하고 있다.

NHL 선수들은 2014년 소치 대회 이후 12년 만에 올림픽 무대에 선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NHL 사무국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참가 비용 문제를 놓고 갈등하다 불참했고, 2022년 베이징 대회 때에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참가하지 않았다.

이번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리는 밀라노 산타줄리아 아이스하키 아레나의 공사가 지연되고, 부실 공사 논란까지 불거져 NHL이 선수 차출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NHL 사무국과 선수협회는 이달 중순 참가를 재차 확인했다.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전통의 라이벌 캐나다와 미국의 금메달 경쟁이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역대 올림픽에서 금메달 9개를 따낸 캐나다는 세계 최강으로 꼽힌다. NHL 스타들이 출전하지 않은 2018년 평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각각 러시아, 핀란드에 금메달을 내줬으나 이번에는 NHL 스타들을 내세워 정상 탈환에 도전한다.

캐나다의 간판 스타는 NHL 에드먼턴 오일러스에서 활약하는 코너 맥케이비드다.

맥케이비드는 NHL에서 세 차례 정규 리그 최우수선수(MVP)를 수상하고, 공격 포인트(골+어시스트) 1위를 5차례 차지한 당대 최고 스타다. 2025-2026시즌에도 공격 포인트 1위(92개), 득점 2위(33골)에 올랐다.

NHL의 '살아있는 전설' 시드니 크로스비(피츠버그 펭귄스)가 젊은 선수들과 힘을 합친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결승에서 연장 결승골을 터뜨려 캐나다에 금메달을 안긴 크로스비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 이어 3번째 금메달에 도전한다.

캐나다의 대항마로 꼽히는 것이 미국이다. 미국은 1980년 레이크플래시드 동계올림픽 이후 46년 만에 금메달에 도전한다.

미국이 가장 기대를 거는 선수는 오스틴 매슈스(토론토 메이플리프스)다. 매슈스는 세 차례 리그 득점왕에 오른 스타다.

NHL 최고 골리이자 2024-2025시즌 리그 MVP에 오른 코너 헬러백(워싱턴 캐피탈스)은 미국의 골문도 든든하다.

캐나다와 미국이 현재 관세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어 맞대결이 성사되면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스웨덴, 2연패를 노리는 핀란드도 우승 후보로 거론된다.

남자 아이스하키에는 총 12개국이 출전하며 4개국씩 3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한다. 캐나다는 체코, 스위스, 프랑스와 함께 A조에 속했고, 미국은 독일과 라트비아, 덴마크와 C조에 편성됐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슬로바키아, 이탈리아와 B조에서 경쟁한다.

조별리그에서 각 조 1위 팀과 2위 팀 중 승점이 가장 높은 1개 팀을 더해 4개 팀이 8강에 직행하고, 나머지 팀들은 플레이오프를 거쳐 8강 진출 팀을 가린다. 이후 토너먼트를 거쳐 우승 팀을 정한다.

여자부는 10개국이 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다. 세계랭킹 상위 5개국이 모인 A조는 모든 팀이 8강에 진출하고, B조에서는 상위 3개국만 8강에 오를 수 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캐나다와 미국, 핀란드, 체코, 스위스가 A조에, 독일과 스웨덴,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가 B조에 속했다.

아이스하키의 올림픽 팀 엔트리 수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아이스하키에서 금메달을 딴 핀란드 대표팀. /뉴시스

골리(골키퍼)를 포함해 남자 25명, 여자 23명이다.

링크 안에서 동시에 출전하는 선수는 6명으로, 골리 1명, 수비수 2명, 공격수 3명으로 구성된다.

두 팀이 상대 골대에 퍽을 넣어 득점이 많은 팀이 승리하는 방식이다. 퍽은 경화 처리된 고무로 납작하게 만들어졌다.

골대의 규격은 너비 1.83m, 높이 1.22m다. 골문을 향해 날아오는 퍽이 워낙 빨라 골리는 마스크와 체스터, 레그 패드, 블로

커, 글러브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물론 골리가 아닌 선수들도 보호 장구를 입는다.

경기는 20분씩 3피어드로 구성되고, 피어드 사이에는 15분씩 쉰다. 정규시간에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 연장전과 쏿아웃을 거친다.

올림픽 아이스하키에서 링크의 규격은 NHL 정규리그와 같이 길이 200피트(60.96m), 너비 85피트(25.9m)다. 그러나 이번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링크 규격은 길이 60m, 너비 26m로, 길이가 1m 정도 짧다.

이번 대회 아이스하키는 남자부 경기가 2월 11일부터, 여자부 경기가 2월 5일부터 열린다. 남자부 결승은 폐막일인 2월 22일에 대회의 마지막 경기로 펼쳐지고, 여자부 결승은 2월 19일에 벌어진다.

한국은 남녀 모두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국 아이스하키가 동계올림픽 무대에 나선 것은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권을 얻은 2018년 평창 대회가 유일하다. /뉴시스

기대주 넘어 간판선수로, 스노보드 이채운

밀라노 동계올림픽 스타

2023 세계선수권서 한국 최초·세계 최연소 우승 달성

2024 강원 유스올림픽 2관왕... 하얼빈 AG에서도 금

한국 스노보드 간판으로 성장한 이채운(경희대)에게 아시아 무대는 좁다. 그는 유망주를 넘어 자신의 이름을 널리 떨칠 준비를 마쳤다.

첫 등장부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만 13세이던 2019년 월드 루키 투어 빅에어 우승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이채운은 지난 2020년 14세의 어린 나이로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아시아 안팎 초대 챔피언 자리를 당당히 차지했다.

스노보드 신동으로 떠오른 그는 출전하는 대회마다 두각을 드러냈다.

그는 이듬해 열린 FIS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며 동 나이대에선 세계 수준 반열에 올라섰다.

올림픽 기회도 기대보다 빨리 찾아왔다.

2006년생으로 올해 20살이지만 이채운에게 이번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두 번째 올림픽이다.

그는 지난 2022년 추가 쿼터로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 베이징 동계올림픽 막차를 탔다.

베이징에서 이채운은 한국 선수단 최연소이자, 대회 전체로 따져도 피겨스케이팅 카밀라 발리예바(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어린 선수였다.

첫 번째 올림픽에선 경험을 쌓았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에 출전한 이채운은 예선 2차 시기에서 35점을 받으며 전체 25명 중 18위에 올랐다. 그는 상위 12명에게만 주어지는 결선 티켓을 어렵게 놓쳤다.

아쉬움은 곧 성장의 발판이 됐다. 이채운은 성인 선수들과 겨뤄도 밀리지 않는 '스노보드 간판'으로 우뚝 섰다.

그는 올림픽 직후 열린 FIS 주니어세계선수권과 유로파컵에서 연이어 정상에 오르며 에일을 마쳤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3년 2월 FIS 스

노보드 월드컵에서 2주 연속 4위를 차지하더니 그해 3월엔 한국 스키·스노보드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 우승까지 달성했다. 그는 세계선수권 남자 하프파이프 역대 최연소(16세10개월) 우승 기록까지 세웠다.

당시 이채운은 1440도 회전을 연이어 선보이는 등 화려한 기술을 감동하게 소화하며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그해 12월엔 스노보드 월드컵에서도 개인 첫 메달(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채운에게 청소년 무대도, 아시아 무대도 좁았다.

이채운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스노보드 하프파이프는 물론 슬로프스타일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회 2관왕을 올렸다.

이어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아게임에서도 눈부신 기술로 이목을 사로잡았다. 그는 슬로프스타일에서 정상에 오른 뒤 대회 2관왕을 노렸다.

하지만 날씨라는 변수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이채운은 주 종목인 하프파이프 금메달을 노렸으나, 대회 결선 당일 경기가 강풍으로 취소되면서 예선 성적으로 메달이 주어졌다. 결선을 위해 힘을 비축하고 있던 이채운은 결국 예선 순위 6위로 대회를 마무리해야 했다.

대회 직후엔 무릎 연골관 수술을 받으며 위기를 맞았다. 이에 올 시즌 나선 4차례 FIS 월드컵에서도 메달권에 진입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가장 최근 대회였던 지난 18일 스위스 락스 월드컵에서 시즌 최고 성적인 8위를 기록하면서 반동의 가능성을 보였다.

이채운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금메달 직후 손 화이트(미국)를 뛰어넘는 선수, 손흥민과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올림픽 무대에서 이채운은 스노보드 여자부의 최가운(세화여고)과 함께 동반 포디움에 도전한다.

이채운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스노보드 하프파이프는 물론 슬로프스타일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회 2관왕을 올렸다.

이어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아게임에서도 눈부신 기술로 이목을 사로잡았다. 그는 슬로프스타일에서 정상에 오른 뒤 대회 2관왕을 노렸다.

하지만 날씨라는 변수가 그의 발목을



이채운이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의아부리 스키리조트 스노보드 경기장에서 열린 2025 동계아시아게임 남자슬로프스타일에서 우승,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에 올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채운은 결선에서 90.00을 기록해 금메달을, 함께 출전한 강동훈은 74점으로 동메달을 따냈다. /뉴시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키피스타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종외공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세종 운암 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서울 GS건설 | (주)한화건설 | HDC현대산업개발